

Vol.48

MARCH
2020

03

하나되는 우리,
HRD는 '협력'이다

| HRD 3월의 이슈 |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고용노동
민원절차 간소화 실시
-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무 이행비율 89.4%,
역대 최고 수준 달성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 2020년 기준

1조 3,230억 원 

OECD 중간 한국 경제 성장전망도 | 2020년 기준

 **0.3%**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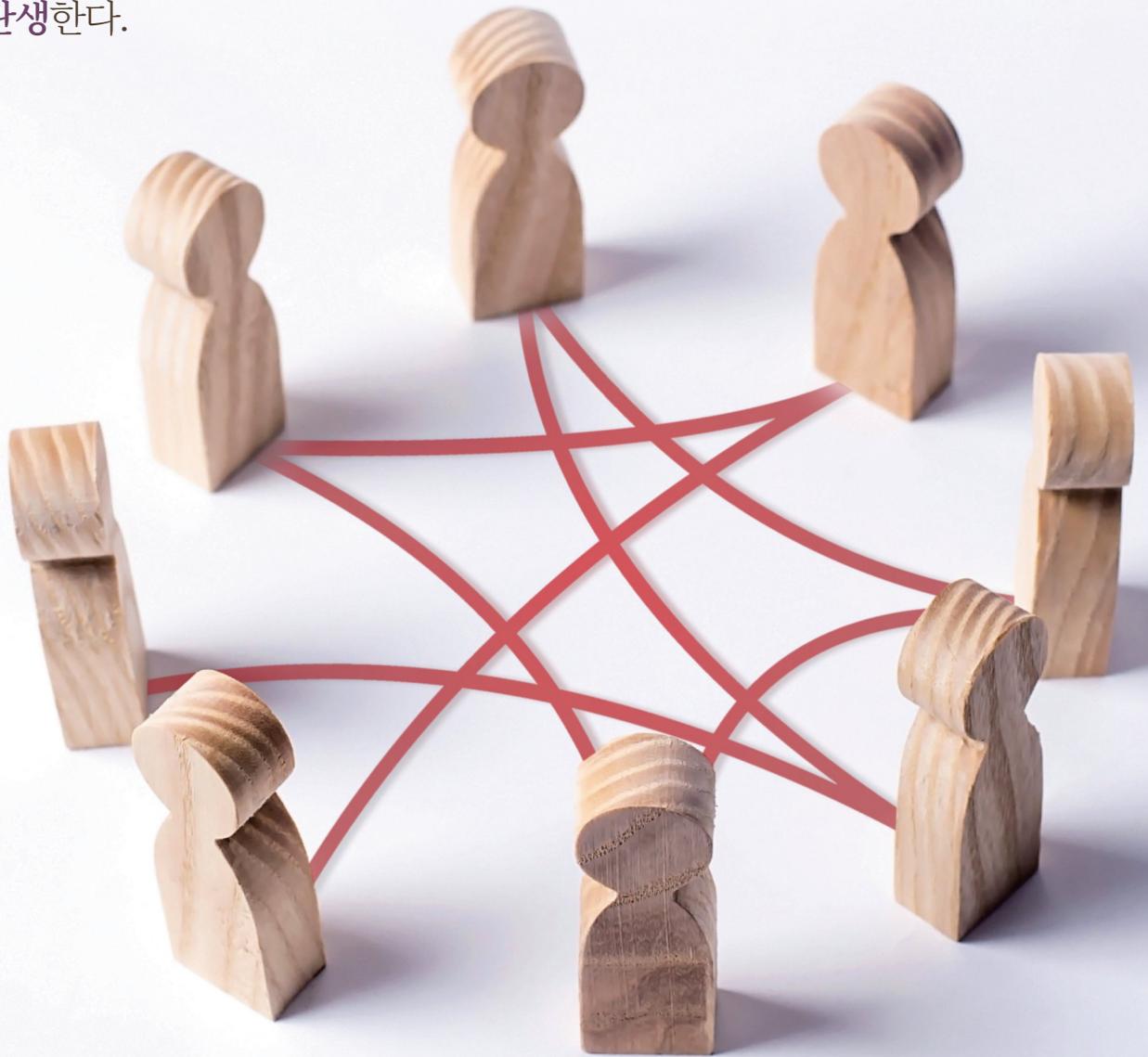
1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전년동월대비 | 2020년 기준

37만 2천명 증가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_생 텍쥐페리





cover story

언제나 가장 위대한 '함께'의 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입니다.

통권 제48호
발행일 2020년 3월 16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Contents

정책동향

- 04 코로나19 확산 대비 고용노동 민원절차 간소화 실시
- 06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 역대 최고 수준 달성
- 0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방안 마련
- 08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현장동향

- 10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10 고용노동부, 일본 등 해외취업 연가·보류 청년의 피해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장밀착형 컨설팅단' 발족
- 11 공정채용(직무중심채용)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
- 12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심의
- 12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9종으로 확대
- 13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
- 13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Zero)화 선포식' 개최
- 14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14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 15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첫출발!
- 15 우수기업 취업의 지름길,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 16 이재갑 장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가족돌봄휴가 부여 등 협조 요청
- 16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 17 '20년 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

HRD통계

- 18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연구동향

- 20 지역별 일터-학습터 관계의 특성 연구
- 20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 21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19)
- 21 한국의 성인학습 국가리뷰: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기관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고용노동 민원절차 간소화 실시

*자가격리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뿐만 아니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스스로 의심되는 자를 모두 포함

- [근로자 및 구직자] 방문 민원절차 최소화, 지원요건 간소화
- [사업주] 대면절차 최소화 및 지원요건 간소화

» 2020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1. 실업급여 지원사업

1 공통사항

- **구직급여 지급** 발열·기침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혜기간 중 고용센터 의무 출석 없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령가능
- **집체교육** 집체교육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으며
 - 온라인에서 강의 교육자료를 읽고 학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 받은 뒤에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 교육참석 인정, 구직급여 지급

2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 **구직급여 신청 전** 치료·격리기간 동안 최대 3년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혜 중** 치료·격리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대구·경북지역 특별 조치>

-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코로나19 감염 의심여부와 무관)는 고용센터 의무 출석 날 없이 수령 가능
- 구직급여 수혜 중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재취업 활동이 4주간 2회 → 4주간 1회로 완화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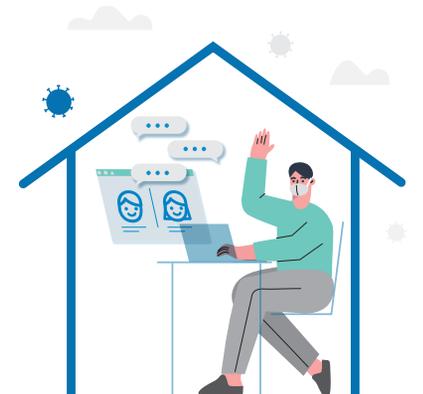
- **초기상담** 최초 상담은 대면상담을 유지하되, 유선으로 상담일정을 변경·조정 가능
- **2회차 이후 상담** 취성패 참여자 중 희망자(코로나19 감염 의심여부와 무관)는 유선으로 상담 가능

2 공통사항

- 치료·격리기간 동안 취업지원 유예 신청 가능

3. 취업지원서비스

- 1 대면으로 실시하던 취업지원서비스 → 온라인(또는 유선)으로 제공
- 2 일자리 정보 → 전화·이메일, 알림톡 등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안내
- 3 일고용센터에서 수강하던 일부 취업특강 → 온라인으로 지원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 수령 가능

5.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 1 공통사항
 - 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포함) 및 사업주 대상 집체훈련은 중단 권고
 -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신청, 유선상담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 감염 우려로 인한 훈련 중도 포기 시 계좌차감 등 불이익 없음
- 2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및 자녀돌봄 필요 시
 - 훈련 미참여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 기존 대부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중단기간 동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음
- 2 신규 대부신청자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7. 외국인고용허가제

- 1 입국시기 조정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조정 가능
- 2 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출국 예정인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 가능

<대구·경북지역 특별 조치>

-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가급적 인터넷(EPS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팩스로 접수하면 담당자가 유선 확인 후 처리

8. 직업훈련중단 권고 전국 확대('20. 2. 27.(목)~)

- 1 기간 2020. 2. 27.(목)부터 1개월 이내 자율 결정
- 2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집체 방식의 훈련¹⁾·취성패 등에 공통 적용
- 3 지원방안 훈련중단에 따른 훈련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방안 병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²⁾에 대한 훈련비 선지급(50%) 지원(즉시 시행)
 - 일반계좌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인원 이상의 훈련을 시행한 기관에 한정하여 선지급(50%) 추진(3월말 예정, 별도지침 시달)
 - 자격시험(간호조무사 등)을 준비 중인 훈련생 대상 적극적인 보강훈련 실시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재근로자 훈련 등

* 훈련 운영이 중단되거나, 훈련생 모집 완료 후 확정 신고된 훈련과정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 역대 최고 수준 달성

*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하여야 함(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올해 93% 이상 달성 의지 표명

» 2020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 (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 2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했다.

【청년 신규고용비율 및 의무이행기관 비율 변화 추이】

(단위:%)

구분	'14	'15	'16	'17	'18	'19
청년신규고용비율	4.8 →	4.8 →	5.9 →	5.9 →	6.9 →	7.4
의무이행기관비율	72.1 →	70.1 →	80.0 →	80.0 →	82.1 →	89.4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가 넘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의무이행 독려장치 외에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행촉진방안

- ① 주무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② 미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미이행 사유, 20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③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해서 2019년 미이행기관의 실적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계속 낮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방안 마련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2020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기존('19년)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	희망하는 청년
연계 서비스 유형	대규모강의형 취업특강
취업 관련 동영상	보고서 작성 전 의무적으로 시청

개편('20년)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	필요한 청년에게 참여 의무 부과 (구직활동 계획 부실, 구직준비도가 낮은 경우 등)
연계 서비스 유형	직종, 구직준비도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폐지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보고서 부실판정 시 처리기준 1회 → 경고(재발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알림 / 2회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회 → 지급 전면 중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 실시된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구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취업성공금 제도

- 1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2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연속 시 정액 현금 50만 원 지원
- 3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올해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소규모 스타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밀착하여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1조 3,23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 » 2020년 3월 4일,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
- **중앙정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 원 지원 예상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통해 수당 지급

- 동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 필요

■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약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예산 지원
- 추경안** 1,000억 원, 신규
- 지원안** ▪ 피해심각지역(2곳): 400억 원 ▪ 일반피해지역: 600억 원

2.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①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 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당초** 2조 1,647억 원 → **추경안** 2조 7,609억 원(+5,962억 원)

②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 명, +3만 명)
- 당초** 21조 1,490억 원 → **추경안** 1조 2,086억 원(+596억 원)

3.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당초** 2,317억 원 → **추경안** 3,114억 원(+797억 원)
-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 ▪ **저소득층** 5 → 7만 명(+2만 명) ▪ **청년** 5 → 8만 명(+3만 명)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 올해 목표인원 29만 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 당초** 9,919억 원 → **추경안** 1조4,793억 원(+4,874억 원)



- 추진기간 2019.10.28(월)~2019.12.20(금)
- 응모현황 총 1,163편
 - * '17년(218편)대비 434% 증가
- 심사결과 34편 선정
 - * 대상1, 최우수1, 우수2, 장려10, 입상20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주요 경과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020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수)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창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재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응모자들로부터 총 1,163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공모전 개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2017년 218건) 총 34편의 당선작을 선정했고 '장관상' 수상작(4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구분	수상자(총 34명)	훈련 직종
대상 (장관상, 200만 원)	권○○ (남, 57년생)	관광통역
대상 (장관상, 200만 원)	조○○ (여, 92년생)	타일
우수상 (장관상, 100만 원)	유○○ (남, 90년생)	빅데이터 분석
	이○○ (남, 95년생)	전산세무/전산회계

* 장려상(30만 원): 10명, 입상(상품권 5만 원): 20명

향후 당선된 수상작은 웹툰,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감동적인 도전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일본 등 해외취업 연기·보류 청년의 피해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 2020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취업비자가 보류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아래의 조치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 ① 해외취업 청년에 대한 비자발급 보류연기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대로, 즉시 보류된 비자가 재발급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
- ② 기존 연수(K-Move스쿨) 참여자의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된 기간 동안 직무어학능력을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해외취업 연수서비스를 연장해서 제공할 계획
- ③ 해외취업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입국제한 관련 온라인 고충센터」를 운영(3.11~) 하면서, 비자가 보류된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 상담(일본현지 노무상담 포함), 취업사전 또는 어학교육, 국내취업 연계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

* K-Move 스쿨(연수기관), 해외 16개 K-Move센터,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 해외 리쿠르트 회사 및 구인기간 등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 파악

•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① 2.27.부터 최근 14일내 대구·청도 방문자 입국금지, 이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경산·안동·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방문자 또한 입국금지 ② 3.9.부터 기 발급된 사증효력 정지, 사증 면제조치 정지 및 한국방문자 14일간 지정장소 대기요청



* **5개분야** 사업타당성산업, 기술 및 R&D, 법률 및 규제, 금융 및 투자, 노무 및 복지 분야 등

** **5개 협력기관**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노사발전재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장밀착형 컨설팅단' 발족

» 2020년 2월 5일,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월 5일(수),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장밀착형 컨설팅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과 투자-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5개분야*, 5개 협력기관**, 전문가 40명으로 '현장밀착형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산업연구원 등 5개 유관기관은 5개 분야별 컨설팅 협력기관으로, 지자체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해당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형우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단이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업무협약대상 7개기관** 재이동포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국외국어기안전정보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공정채용(직무중심채용)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

» 2020년 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직무중심 채용 제도 수립 지원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 7개 기관*과 공공기관 단계별 채용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7년 7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직무능력 필기평가 시행 기관 수가 증가하는 등 공정채용을 위한 직무능력 중심 평가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 단계별 채용 지원 범위(안)]]

① 채용공고	② 서류전형	③ 필기전형	④ 면접전형
- 직무별 관계 법령	- 편견요소 배제	- 필기평가 개발·지원	- 외부 면접위원 제공
-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 자기소개 문항 개발 지원	- 평가문항 타당성검토	- 면접 운영방법 제공
- 내부규정 연계	- 외부평가위원 활용	- 필기평가 운영지원	
- 직무분석 체크리스트			

향후 공단은 공공기관의 요청 내용에 따라 직무기술서 작성부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기관별 채용과정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검토, 서류면접 평가위원 공유, 필기면접 평가 문항 제공 등 단계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 사업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모델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제11조)

*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 (19년 월 60만 원 → 20년) 80만 원제(11조)

* **세계지원**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 단절 기간(퇴직후 3-10년 → 3-15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동일기업 → 동종업종) 완화(20년)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심의

» 2020년 2월 12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을 심의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환경 개선과 경력단절예방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주요과제를 설정하였다.

- 1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제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낮춰 여성의 고용 강화
-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취업 희망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확대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역량강화,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3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제고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플랫폼 일자리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지원
- 4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종일보육 내실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초등돌봄교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추진
- 5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중앙·광역 새일센터 기능 강화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및 고용서비스의 네트워크 기반 협력체계 강화
 - * 구직자 및 구인처 정보의 호환과 관련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9종으로 확대

» 2020년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월 25일(화)부터 ‘정부24’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확인서” 등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201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 ‘큐넷(q-net.or.kr)’과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gov.kr)’를 연계해 “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 등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확대하는 서비스는 큐넷(q-net.or.kr)사이트 고객의 이용률이 높은 6종으로, 향후 공단은 전문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정부24(gov.kr) 사이트 ‘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 신청-취업-직장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정부24(gov.kr) 사이트 연계 확대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정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3종)	
1. 자격증 진위확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문)	
3. 상장형 자격증	
+	
추가(6종)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문)	7. 검정 수수료 납부확인서
5. 시험접수확인서	8. 시험합격확인서
6. 시험응시확인서	9. 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에서 제공되는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번	산업명	유망직업
1	스마트팜	스마트팜컨설턴트 스마트팜구축가
2	바이오헬스	생명과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전문가
3	스마트시티	도시계획가 교통전문가 컴퓨터보안전문가
4	에너지산업	에너지공학기술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5	드론	드론전문가 드론컨텐츠전문가
6	미래자동차	신소재개발연구원 무인자동차엔지니어
7	스마트공장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8	핀테크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보안전문가

『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산업별 직업 목록』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

▶▶ 2020년 3월 3일, 한국고용정보원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관련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별 전망은 어떻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월 3일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동향, 현직자 인터뷰 등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전망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농장의 설계·구축·운영 등을 조인하고 지도하는 ‘스마트팜 컨설턴트’와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마트팜 구축가’가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질병예방·진단·치료·건강증진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약·의료산업으로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생물학·의약 등 이론 연구로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생명과학연구원’, IT 건강 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 등이 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 책이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평생 취업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동자, 진로·직업상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에 펼쳐질 직업 세계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데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Zero)화 선포식' 개최

▶▶ 2020년 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월 13일 공단 본부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Zero)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현대중공업 진윤근 명장, 국가기술자격 출제연구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안전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고 안전선언문을 제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안전사고 제로(Zero)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100만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재료시험기사 등 116종목에 대해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금형제작기능장 등 323종목에 대하여 안전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국가기술자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가기술시험장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2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월 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재단(이사장 김유선),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비학위직업훈련과정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간 상호 정책홍보, 사업 참여청년 모집 발굴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 협업을 추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일자리 미스매칭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이 높다”며, “3개 기관이 청년 맞춤형 취업 정보 및 역량 강화 지원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Best HRD)사업 공고

» 2020년 3월 3일, 고용노동부·교육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승리의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Best HRD 인증 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06년부터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주요 내용

- 선취업-후학습(고졸채용 후 진학 등 후학습 지원) 우수기업 분야 신설
-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 기회 제공하는 공공기관 평가 시 우대
- 신규 심사지표 추가 등 인증 심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운영
- 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 접수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 이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첫출발!

» 2019년 3월 2일,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년 8월 발표)에서 안내한 것처럼, 2020학년도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51개교)부터 처음으로 고교학점제¹⁾를 시행한다.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하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특징

- 이수학과와 학점당 이수시간이 적정 조정
 - 3년간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 → 192학점으로 조정
 - 1학점 수업량을 17회 → 16회로 조정
-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
 - 학과 내 세부전공 운영(10개교 28개 학과) 및 타 학과 부전공 운영(9개교 22개 학과)
 - 학기중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21개교 59개 학과), 입학 전 진로설계 지도(19개교 49개 학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하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수기업 취업의 지름길,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 2020년 3월 6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맞춤형 채용공고를 추천하는 '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테마별 채용관'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검증을 거친 기업 채용정보를 주제별로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자 수는 36만 6,698명, 페이지 조회 수는 261만 3,885건에 달한다.

또한, 구인공고 건당 입사 지원 건수를 비교하면 테마별 채용관은 9.21건으로 일반 구인공고 8.02건보다 많아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테마별 채용관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총 9,408 명의 구직자가 채용관을 거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테마별 채용관 사용화면 !





이재갑 장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가족돌봄휴가 부여 등 협조 요청

» 2020년 3월 5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월 5일(목)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부의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2.28)」 추진사항 설명 및 가족돌봄휴가 부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담내용 요약

- **중앙회 관계자** 지난 2.28 발표한 지원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비상상황인 만큼 한도를 더욱 확대(90%)해 줄 것을 건의
- **고용부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기확대(2.3 → 3.4)한 바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업종은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
- **중앙회 관계자** 직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민-관이 함께 건강경영캠페인 추진하자고 제안
- **고용부 장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규제중심이 아닌 제도를 조성·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 제안, 또한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을 위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 2020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①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계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며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②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 가능**
 -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 우선 알선 지원
- ③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
 - 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
- ④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 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년 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

» 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

3.2.(월)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에서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ECD는 '20년 중국 및 세계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

* 중국 성장률 전망('19.11→'20.3, %, %p) ('20)5.7→4.9, ▲0.8 ('21)5.5→6.4, +0.9

세계 성장률 전망('19.11→'20.3, %, %p) ('20)2.9→2.4, ▲0.5 ('21)3.0→3.3, +0.3

② 한국 '20년 성장 전망도 하향(▲0.3%p), but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한국 성장률 전망('19.11→'20.3, %, %p) ('20)2.3→2.0, ▲0.3 ('21)2.3→2.3, 0.0

① 세계 및 G20 성장률 하향조정폭(▲0.5%p) 대비 낮은 수준

② OECD가 우리와 함께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가 등으로 언급한 일본·호주 및 코로나19 확산 중인 이탈리아보다 양호

* '20년 성장률 하향조정폭('19.11 대비 '20.3, %p) (일본)▲0.4 (호주)▲0.5 (이탈리아)▲0.4

③ 우리나라의 '20년 성장률 전망 순위는 G20 중 5위 유지

* '20년 성장률 전망(%) (인도)5.1 (중국)4.9 (인도네시아)4.8 (터키)2.7 (한국)2.0

■ 정책권고

①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공중보건 지원, 기업·노동자 단기 피해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무엇보다 보건·의료 분야 추가 재정지원이 중요 + 단축근무 등을 통한 고용유지, 현금이전 등을 통한 가계 지원, 중소기업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등도 필요

② 장기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수적(Essential), 다만 재정 정책 및 구조개혁 병행 권고

*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되어온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 제한적(Only modest)

- 특히, 한국·호주 등의 경우 예방적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심리 회복과 부채조달 비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③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 OECD는 한국을 캐나다·독일·일본·영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재정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로 언급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

» 고용노동부, 2020



· 명절(1.24~27) 효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에 따른 증가 효과의 안정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

* '19.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 지속(제조 → 전문과학기술, 3천 4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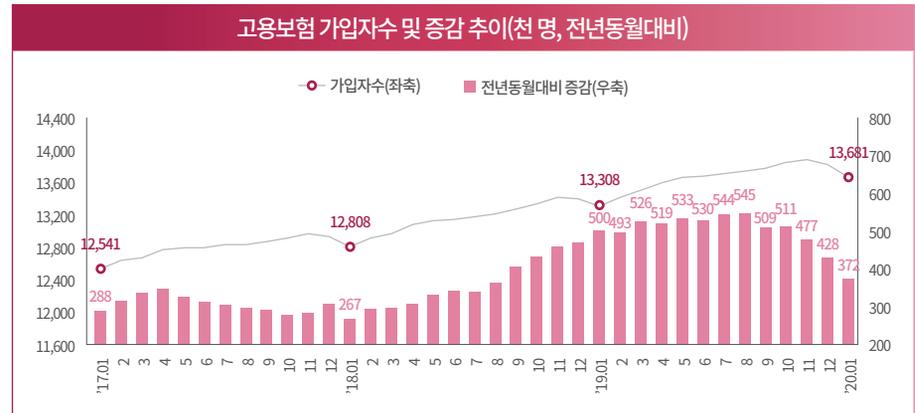
주요결과

- ❖ ('20.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8만 1천 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37만 2천 명 늘어 증가 지속
-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7만 4천 명, 구직급여 수혜자는 49만 9천 명, 지급건수 1회당 수혜금액은 127.6만 원

전체

'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8만 1천 명이며 전년동월 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가입자수(천 명) ('19.9)13,791 → (10)13,866 → (11)13,905 → (12)13,841 → ('20.1)13,681
- 가입자수 증감(천 명) ('19.9)509 → (10)511 → (11)477 → (12)428 → ('20.1)372



산업

서비스업은 39만 3천 명 증가, 제조업은 감소 지속(-29천 명)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 명) ('19.9)500 → (10)503 → (11)476 → (12)434 → ('20.1)393
-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 명) ('19.8)1 → (9)-7 → (10)-8 → (11)-13 → (12)-17 → ('20.1)-29

- 서비스업 '보건복지'+(126천 명), '숙박음식'+(60천 명), '전문과학기술'+(46천 명) 등에서 서비스업 전체 증가세 견인
- 제조업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기타운송장비, +5천 명), '의약품' (+4천 명) 등은 증가 하였으나, '자동차'(-8천 명), '기계장비'(-7천 명) 등에서 감소

인적속성

남성(+126천 명, + 1.6%)과 여성(+246천 명, + 4.4%) 모두 증가,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 지속

-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 명) ('19.9)315 → (10)311 → (11)297 → (12)270 → ('20.1)246
- 남성 가입자수 증감률(%) ('19.9)2.5 → (10)2.6 → (11)2.3 → (12)2.0 → ('20.1)1.6
- 여성 가입자수 증감률(%) ('19.9)5.6 → (10)5.5 → (11)5.2 → (12)4.7 → ('20.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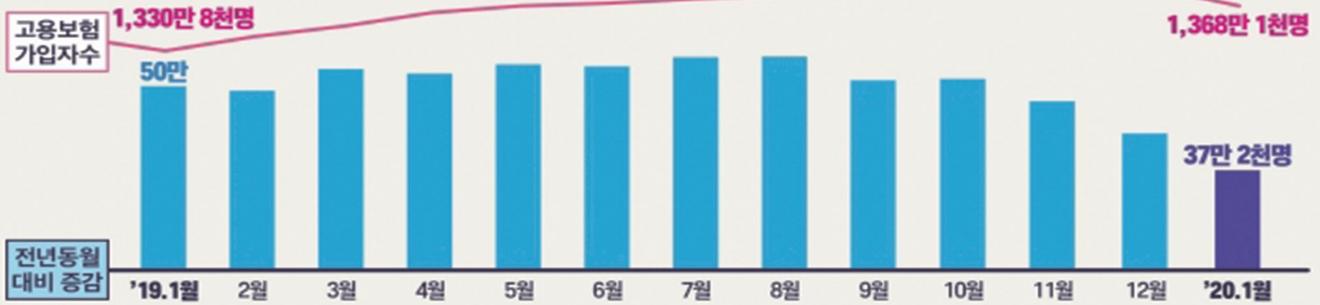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고, 청년층과 40대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
- 50세 이상 가입자수 증감(천 명) ('19.9)395 → (10)397 → (11)386 → (12)351 → ('20.1)314
- 50세 이상 인구 증감(천 명) ('19.8)659 → (9)656 → (10)655 → (11)652 → (12)650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74천 명으로, '제조업'(27천 명), '사업서비스' (24천 명), '건설업' (21천 명), '공공행정'(20천 명)을 중심으로 신청하였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1월노동시장동향

고용보험 가입자수 1,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명 증가 ↑

(단위:천명)



서비스업 39만 3천명 증가 ↑ (건조한 증가세 지속)

제조업 2만 9천명 감소 ↓

산업



보건복지
12만 6천명 ↑



숙박음식
6만명 ↑



전문과학기술
4만 6천명 ↑



사업서비스
7천명 ↓



식료품
5천명 ↑



기타운송장비
5천명 ↑



자동차
8천명 ↓



기계장비
7천명 ↓

연령·성별



남성
12만 6천명 ↑



여성
24만 6천명 ↑



29세 이하
1만 8천명 ↑



30대
2만 1천명 ↓



40대
6만 2천명 ↑



50대
15만 3천명 ↑



60세 이상
16만명 ↑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취득자 72만 6천명(7만 6천명 감소 ↓) / 상실자 87만 5천명(2만 8천명 감소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현황



신규신청자
17만 4천명



제조업
2만 7천명



사업서비스
2만 4천명



건설업
2만 1천명



공공행정
2만명



지역별 일터-학습터 관계의 특성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

💡 안우진, 최영섭, 김미란, 정재호, 윤수린, 명유진, 강인순

목적

- 일과 학습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노동시장 정책 전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 **지역 노동시장 권역 설정**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중 통근자의 유입유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산출하여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의 관할지역과 지역 노동시장권을 비교해본 결과, 일부 복지센터의 경우 상이한 지역 노동시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 **일터-학습터 공간구조 분석** HRD-Net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자 이동행렬을 산출하여 지역별로 직업훈련이 실현 되는 지역을 확인하여 근로자지원 직업훈련과 기업지원 직업훈련 비교분석 시 공통적으로 서울로 이동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참가자의 비율은 감소, 해당 광역경제 권역 내에서 훈련을 받는 참가자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실업자들의 지역이동 분석** 실업자 훈련생들의 거주지역과 훈련지역을 비교한 결과 훈련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이동한 실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훈련 및 고용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 정책 수립은 한계를 보임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 한국고용정보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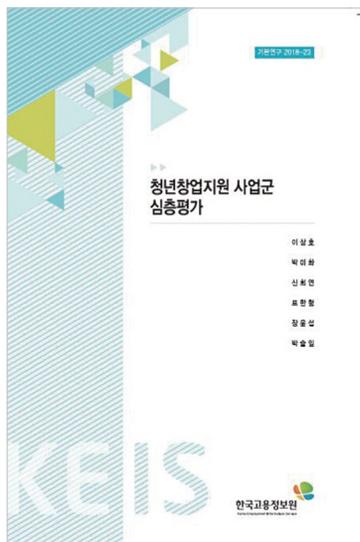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운섭, 박솔잎

목적

-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중 '18년 추경사업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중기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평가하고 청년창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 **조사방법** 각 부처에서 제출된 2015-2017년까지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와 탈락자 리스트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DB와 연계한 미시적 고용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 리스트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임금근로자, 실업자, 창업자 등의 집단별로 특성 분석
- **분석내용** 창업시작 동기,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행과정, 창업성과, 정책 개선 사항 등의 영역에 대해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창업지원의 이론적-정책적 이슈와 창업기업의 거시적 기업성과 등을 진단하여 청년 취업지원 정책 개선과제 및 평가대상 사업별 개선과제를 제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1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 박천수, 나현미, 김성남, 류지영, 박동찬, 장현진



목적

-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를 반영한 세분류별 직업지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의 현황을 이해하고 진로선택과 일자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정보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 직업지표 설문을 바탕으로 직업지표 301기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와 조사 설계
- 직업지표 분석 및 대상별 재직자 추천 직업
- 직업지표 이슈 분석
- 직업지표연구 301기 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 대상별(고졸자, 인문/자연계열 대졸자/경력단절 여성/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② 근로시간제 개선 및 양성평등 제고 등 직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③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진로개발을 위한 기회 확대 정책을 제언



한국의 성인학습 국가리뷰: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 김철희, 설귀환, 문한나, 이재국



목적

- 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지와 제공되는 교육훈련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주요내용

-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현황, 고용의 변화를 고용보험 DB와 HRD-net DB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 중소기업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중소기업 CEO가 직업능력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
-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다양한 근로조건 격차가 존재하고 기업간 관계, 노동시장 특성에 기인한 것, 개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조직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 또한 교육훈련의 선택권이 개인으로 이동, 평생내일배움 카드제 도입 등에 따라 경력상담 역할이 매우 중요



2.12. 2019년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3.3.~5.25.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3.13. 코로나19 관련 교육 훈련시설 대응
상황 점검

3.26. 이달의 기능한국인(3,4월) 시상식 개최

3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선정

3.3.~5.25. BEST HRD 인증사업 공고

~3.4. '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컨설팅
코칭기관 모집 공고

3.9. 한국직업방송 10주년 특집 「일상의 혁명,
4차산업」 프로그램 시사평가회 개최

3.6. '20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약정체결

3.2. 제6대 원장 취임

3월 중 직원채용
(공무직 및 일반계약직, 청년인턴)

3.2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 회의





3.5.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전기연구원
업무협약

3.11. 2021년 공동훈련센터 교육 계획을 위한
TF 회의

3.25.~3.26. 2020년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참여

2.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업무협약 체결

2.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 해양환경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2.21. 일학습병행대학 강소기업경영학과
졸업생 발전기금전달식

2.21. 2019년도 학위수여식 - 축하영상 대체

2.27. 2020년도 입학식 - 축하영상 대체

2.27. 코로나19 대응 도지사 - 충남도
대학총장 간담회

3.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학사협의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3.13. '20년도 훈련기관인증평가 1단계 기관
건전성평가 운영

3.12. '20년도 집체훈련심사 기업맞춤형
선정 기관 간담회

3.25.~3.31. '20년도 원격훈련 2차 과정심사 접수

3.13.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현장평가 운영

2.4.~2.10. 2019년도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피드백 권역별 컨설팅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